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10월 18일(주일) 제1315호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필사본' 전시



성도들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에 전시된 성경필사본을 보고 있다.

10월 31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 11월부터는 Acts29비전빌리지에 전시보관 예정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국내외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참여한 '에스라 프로젝트' 성경필사본이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에서 전시되고 있다. 현재 전시하고 있는 필사본은 선제본된 15권(전임교역자, 장로, OCC 공동체, 강남B공동체, 강촌공동체, 이수공

동체, 도곡공동체, 서초C공동체, 송파B공동체, J4U 공동체, SNS공동체, 예수제자학교 JDS, 두란노해외선교회, CGNTV)이다. 10월 31일(토)까지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에 전시되고, 그 이후에는 Acts29비전빌리지에 전시 및 보관할 예정이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에 전시된 필사본을 살펴본 성도들의 눈가에 이채와 감동이 교차했다. 김연희 집사(강촌공동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성경말씀을 한 줄 한 줄 쓰면서 위로 받고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권민정 자매(SNS공동체)는 "필사지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필사 시간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상옥 장로(강촌공동체)는 "말씀을 필사하며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려는 성도들의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아 코끝이 찡할 정도로 감동"이라고 했고, 김대진 목사(송파A공동체)는 "어려운 때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노력과 소망, 믿음이 필사본에 담겨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다"고 감격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10월 12일부터 예배당 예배 재개

토요·일요주일, 주중, 새벽기도회 등 모든 예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전 예약 및 전화 예약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1단계 하향으로 인해 지난 10월 12일(월)부터 온누리교회 모든 예배당 예배가 재개됐다. 토요주일(1부~2부), 일요주일(1부~7부), 새벽기도회, 주중 예배, 대학부, 홀리스타(서빙고, 양재, 여의도, 대학로) 등의 예배가 재개됐다. 수도권 지역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 8월 19일(수)부터 영상 예배로 전환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성도들은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온라인 사전예약(www.onnuri.org)을 하고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면 된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성도들은 전화로 예배당 예배 예약을 할 수 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출석하고자 하는 교회로 전화하면 예약을 도와준다. 등록교인만 가능하다.

온누리교회는 예배당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한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CGNTV에서 토요주일예배 1~2부, 일요주일예배 1~7부, 새벽기도회(1부 오전 5시 20분, 2부 오전 6

시 30분)실황을 시청할 수 있다. 차세대, 대학 청년부, 외국어예배, 장애인예배 주일예배도 각 유튜브 채널에서 드릴 수 있다.

강신호 형제(SNS공동체)는 "재개되는 예배당 예배를 드리면서 해이해진 마음을 다시 붙잡고 싶다"면서 "날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김진국 집사(한강공동체)는 "오랜 만에 예배당 예배가 재개된 만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예배와 교회가 되도록 더욱 개인 위생에 신경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성수 장로(김포공동체)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이곳이 천국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다"면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와 이웃을 섬기고 싶다"고 고백했다.

문의: 서빙고 02-3215-3220, 3263, 3661

양재 02-570-7918, 7396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드림온플러스 재팬' 프로젝트 실시

CGNTV 셋톱박스 후원하고 싶은 성도 대상

러브소나타 본부와 CGNTV가 '드림온플러스 재팬(Dream On+ Japan)' 프로젝트를 펼친다. 드림온플러스는 인터넷 기반의 CGNTV 전용 수신기(셋톱박스)를 말한다.

드림온플러스 재팬은 코로나19로 인해 러브소나타 전도집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CGNTV 셋톱박스를 통해 일본 선교의 불씨를 이어가려는 캠페인이다. 일본 러브소나타

협력교회 및 실행위원회, 참가자, 결신자 중에서 CGNTV 셋톱박스 장치를 희망하는 교회와 개인에게 CGNTV 셋톱박스를 후원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비용은 한 대당 15만 원이다. 선착순 200대 모집한다. 문의: 02-749-1149

/ 정현주 기자

사르밧 프로젝트 2,123개(81%) 순 참여

10월 말까지 2000개 가정으로 쌀 20kg 배송

추수감사절의 감사를 농어촌교회와 온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사르밧 프로젝트'가 마감됐다. 온누리교회 2603개 순 중에서 무려 2123개(81%) 순이 참여했다.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지는 온누리교회 성도 2000명이다.

이기훈 목사(사회선교본부장)는 "순 중심의 참여로 풍성한 나눔들이 일어났고, 나눔을 통해서 연합의 힘을 느끼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고 말했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성도들의 헌금으로 온누리교회와 협력 중인 농어촌교회를 통해 지역 농가와 협동조합에서 쌀을 구매해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쌀을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10월 말까지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 가정으로 쌀 20kg가 도착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세계관 묵상’

세계관, 삶 전체를 조망하는 관점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제임스 사이어는 “세계관이란 실재의 근본 구성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전제들의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는 다양한 교육을 통해 실재(reality)의 근본

구성이 운영되는 원리를 배우고, 그 배운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고 그 결과들을 경험한다. 이렇게 배우고 경험한 것들 중에서 진리라고 생각하거나, 선호하거나,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일련의 전제들을 모두 모아둔 것이 바로 세계관이다. 그러므로 세계관은 전 학문 분야를 망라하는 관점이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부딪히고 경험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관점이다.

데이비드 노에벨의 <충돌하는 세계관>에서는 ‘신학, 철학, 윤리학, 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 등 삶을 바라보는 10개의 대표되는 학문 분야를 통해 각 세계관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을 비교하고 있다. 각 세계관들은 각 학문 분야에 접근하는 특정한 관점을 제공한다. 반대로 각 학문 분야는 세계관과의 밀접한 관계로 인해 특별한 가치를 지니며 발전한다.

각 학문 분야들은 각 세계관에서 유래한 실재를 이해하는 기본 가정이나 가치체계 위에 형성되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세계관마다 각 학문을 이해하는 독특한 방식을 가진다.

앞으로 이 칼럼을 통해 10개의 학문 분야에 대한 6~7개 세계관의 관점들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지나치게 분석적인 접근이나 학문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의 믿음체계와 가치체계를 가지고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법학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의 규칙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질 수 있다. 정치학은 전혀 배운 적이 없지만 우리의 정치권이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다. 경제학은 전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더 잘 살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각 학문 분야 자체와 세계관이 서로 얽혀서 발전해가는 방법을 해체와 분석보다는 융합과 통섭을 통해 이해해야 한다. 각각의 학문 분야는 다른 분야에 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완전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신학과 철학과 윤리를 구분하는 경계는 불분명하며 윤리와 법의 구분도 인위적이다. 법, 정치, 경제를 서로 떼어놓고 설명하기도 힘들다.

기독교인들은 자신이 받은 교육이나 경

험이 아닌 성경 속에서 각 학문 분야들의 기준을 찾아내어 자신의 기독교 세계관 정립에 적용해야 한다.

데이비드 노에벨이 제시한 것처럼 창세기에서 우리는 10개 학문 분야를 설명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각 학문 분야가 창조질서의 어떤 측면들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신학과 철학: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윤리: “선악을 알게 하는”(창 2:9).

생물학: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창 1:21).

심리학: “생령이 되니라”(창 2:7).

사회학: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 1:28).

법률: “내가 네게... 명한”(창 3:11).

정치(또한 다시금 법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창 9:6).

경제학: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창 1:29).

역사: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창 3:15).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데, 각 학문 분야에 대하여 각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신학: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

체로 거하시고”(골 2:9).

철학: “하나님의 말씀”(요 1:1).

윤리: “참 빛”(요 1:9; 3:19-20).

생물학: “생명”(요 1:4, 11:25; 골 1:16).

심리학: “구주”(눅 1:46-47; 딤후 2:13).

사회학: “이들”(눅 1:30-31; 사 9:6).

법: “법의 제정자”(창 49:10; 사 9:7).

정치: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계 19:16; 딤후 6:15; 사 9:6; 눅 1:33).

경제학: “모든 것의 소유자”(시 24:1; 50:10-12; 고전 10:26).

역사: “알파와 오메가”(계 1:8).

이처럼 구체적인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성경적 세계관을 정립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또한 성경 전체를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통전적으로 이해하여 한 구절에 묶여 편향된 성경 해석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각 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해나가는 일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세계관의 정립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며 평생에 걸쳐 자신의 관점을 성경의 다림줄에 비교 및 검토하며 쌓아나가는 성화의 과정과 같은 의미일 것이다.

묵상: 성경 말씀이 내 삶 혹은 학문적 전공분야에서 분명한 기준이 된 것이 있는가?

가정문제, 이렇게 해결합시다!

지금 당장 추억을 만들어라!

내가 잘 아는 가정에 폐암을 앓던 아버지가 있었다. 그 아버지는 병마와 싸우는 중에도 좌절에 빠져 있지 않고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봉사를 다녔다. 가족과 추억을 쌓기 위해 애쓰던 아버지는 끝내 하늘나라로 갔다. 그 가정의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지만 구김살 없이 밝게 자라가고 있다. 5학년 막내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

“난 그때 아빠와 함께 했던 기억을 가끔 떠올려요.”

아빠와의 아름다운 추억이 그 아이를 붙들고 있었다. 아빠의 텅 빈 자리,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자리를 아름다운 추억이 메워가고 있었다.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추억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진실로 부유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간직한 사람일 것이다. 어쩌면 인간은 추억을 만들고, 추억을 먹고, 추억을 간직하며, 그 추억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힘든 일에 처했을 때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추억 속에만 잠겨 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추억을 떠올리면서 행복해질 수 있고, 잃어버렸던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이 같은 추억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원동력이 된다.

부모는 아이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야 한다. 특히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은 매우 중요하다. 아버지와 아름다운 추억들이 아이들의 삶을 움직여 간다. 그리고 아이의 인격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다. 일등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얼마나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느냐가 바로 인생의 성공 열쇠다.”

의미 있고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든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면, 아이들에게 의미 있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아빠가 좋은 아빠일 것이다.

여러분은 ‘아버지’라는 말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혹시 늘 피곤해하던 모습, 말이 없던 모습, 불같이 화를 내던 모습, 늘 일에 파묻혀 살던 모습, TV 앞에만 앉아 있던 모습이 떠오르는 않는가? 당신의 자녀들 또한 당신을 이런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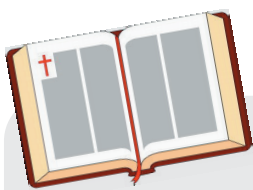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남겨 주어야 할 아름다운 유산이 있다. 첫째는 신앙이고, 둘째는 건강한 자아상이다. 셋째는 거룩한 비전이며, 넷째는 아름다운 추억이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아름다운 추억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관계를 맺는 긍정적인 힘을 얻는다.

인간은 추억을 만든다. 그리고 그 추억이 인간을 만든다. 아름다운 추억은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뿐 아니라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는 원동력이 된다. 가문을 세우고 이끌어 가는 엄청난 유산이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만들어주자. 아이와 함께 해외 선교여행을 다녀오자. 아이와 함께 캠핑이나 래프팅을 하자. 아이와 함께 영화를 보고, 단 둘이서만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자. 아이와 씨름도 하고, 자전거도 타자.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편지를 쓰고, 문자메시지로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말자. 아이 생일에는 선물과 함께 이벤트를 해주고, 아이와 함께 요리를 해보자. 온 가족이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시설에 방문해서 봉사를 하자. 아이와 함께 운동 경기를 보러 가자.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목이 터져라 응원하자. 아이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추억을 만들자!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누가복음 17:11~19

“천국의 삶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재난을 통해서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절기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에게 반역하며...” 이러한 끔찍한 죄악의 모습들을 열거하는 한복판에 들어 있는 것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동일한 죄로 여기십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대표적인 문제로 열거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때 우리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롬 1:21).

아담과 하와와 최초의 타락 문제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에게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를 먹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금지명령만 주셨습니다. 만일 모든 것에 감사했다면 한 가지 금지명령을 쉽게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을 때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한 가지 금지명령이 불평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한 가지 명령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그것을 더 크게 여길 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보다 불평과 불만이 더 빨리 나오고, 더 많이 나오는 것이 타락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법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

오늘 본문은 큰 은혜를 입고 더 감사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땅히 해야 할 감사를 행했던 한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역을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도, 갈릴리에서도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갈릴리 사람들은 모여 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양쪽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기에 그 사이 지역에서 함께 살았던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공통분모가 그들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셔야 했습니다. 꼭 가야 하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좋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버려진 지역이고, 만나지 말아야 될 나병 환자들이 가득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지역을 선택하시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나병 환자도 나았다는 소문을 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놀라운 새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성육신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는 재창조의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들이 고침 받은 사건과 그 이후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의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째, 믿음은 문제와 필요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열 명만 살았던 지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열 명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간구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사람들

을 가까이 접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매우 컸습니다. 그들의 삶은 위기였습니다. 완전히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상태가 아무리 심각해도 믿음의 소리는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십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재난의 기간은 도리어 하나님의 더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지만 참된 믿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체험하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

둘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큰소리로 부르짖는 열 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 회복되는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었을 때 사회로 복귀 여부를 제사장들이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검진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나았다”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았으니 이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확인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직 회복의 징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증조가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믿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14절).

‘가는 도중에’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는 낮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도중에 그들이 깨끗해졌습니다. 증거를 먼저 보고 믿으려 하지 말고 말씀을 믿음으로

증거를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증거가 제시되어야 믿는 것은 확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확인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참된 믿음은 증거를 보고 믿는 확인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자체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하고 나서 믿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증거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

셋째,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단계의 믿음에서 아홉 명이 탈락합니다. 열 명이 동일하게 고침을 받았지만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15~1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열 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 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나?’”(17~18절).

마지막에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기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지역에 있던 많은 나병 환자 가운데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간청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열 명 모두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간절히 나왔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걸음이 모두 믿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엎드려 감사하는 믿음은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를 의미합니다. 경배는 최고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절정, 예배의 완성은 감사입니다.

(14면에 계속)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반대

‘1일 1댓글 운동’ 등으로 낙태 반대 의견 적극 제시해야

지난 10월 7일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여성 단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등 4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pro-life)’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 비판했다. 이날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정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실상 전면적인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경시 문화를 가속화시키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봤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정부가 지난 10월 6일 내놓은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이 담긴 형법 제269조, 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헌법불합치 이후 1년 6개월 만에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낙태죄는 유지 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 이 담겨있다.

사실상 무제한 낙태 허용

정부가 발표한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 건법 개정안’의 골자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14주까지는 임신부 요청에 의해 조건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 둘째, 24주까지는 성폭 력, 근친상간, 임신부의 심각한 건강 문제, 사 회적 혹은 경제적 사유에 의하여 상담하고 24 시간이 지나면 낙태를 허용한다. 셋째, 미성년 자도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를 원할 경우 상담 하면 할 수 있다. 넷째, 먹는 낙태약(약물) 허용 이다. 이에 대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사실 상 무제한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비판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현재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 아는 없고, 14주 태아는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 찰할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 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24주 이내 낙태 허용 조건에 해당하는 ‘사회, 경제적 사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다.



내용이 애매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사 회경제적 사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다”면서 “임산부 요청이 있으면 거의 모든 사유가 사회경제적 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문제는 미성년자가 낙태를 원하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한 점과 약 물 낙태 허용이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먹는 낙태약이라 고 불리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뿐만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 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 는 위험한 약물”이라며 “정부가 이 약물을 청 소년들이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만드는 격”이

라고 비난했다.

교회와 크리스천들은 ‘낙태죄에 대한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 해야 할까.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 왜냐하면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와 사람들은 이번 개정안조차도 낙태죄 를 완전히 없애지 않았다며 완전폐지를 위해 정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론을 바꿔야 한다. 오창화 집사 (한강공동체,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공동대표) 는 성도들에게 ‘1일 1댓글 운동’을 했으면 좋 겠다고 제안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낙 태’를 검색하고 나오는 수많은 기사들에 실명 으로 ‘낙태 반대’라는 글을 올리는 것이 ‘1일 1댓글 운동’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법무부장관(참조: 형사법제과장, 전화 02-2110-3712)에게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 및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 팩스 (02-3480-3119)로 제출해도 된다.

또한 교회는 이 사안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처럼 교회의 근간과 생명경시를 초래하는 심 각한 사안으로 인지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한다.

문의: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acts4prolife@gmail.com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304-040262

형법 개정안 의견 제출

1. 온라인 의견 제출(11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 들어가 입법예고란 검색란에 ‘형법’으로 검색(공고번호 제2020-307호)
2. 팩스, 전화로 의견 제출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 (참조: 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 입법예고 참조
전화 02-2110-3712, 팩스 02-3480-3119

‘낙태죄에 대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의 성명서

낙태죄와 관련한 정부의 입법예고가 이루어졌다. 임신 14주까지 본인 요청에 의해 임 의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임신 24주까 지의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 을 적시하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을 허용하 기로 한 부분과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 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 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 14주의 태아 는 엄마의 자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엄청 난 속도로 발달하게 된다.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을 느 낄 수 있다. 머리가 급속히 커지고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 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 이 굽어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이다. 이 시기까지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그야 말로 태아와 엄마 모두에게 너무나 야만적 이지 않은가?

또한 기존 모자보건법 14조가 낙태의 허 용 한계를 ‘유전학적, 신체질환, 전염성 질 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 가 있는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로 명확하게 제

시하고 있는 반면, 개선입법에서는 ‘사회경 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 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막 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것은 개선(改善)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악 (改惡)이다.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자연유산 유도제와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이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은 엄청난 출혈과 통증 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 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하여 출산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 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이런 약을 미성년 여성들에게 합법으로 허용한다 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가?

태아는 여성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태어날

수 있는 핵이 아니며, 지속해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체이다. 정부에 서 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 아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 경시하는 문화를 가속화시키는 개악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 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 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둘, 미성년자가 범법보호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 하라!

셋,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 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 히 마련하라!

/ 2020년 10월 7일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단체 연명

코로나19 시대의 온누리선교를 논한다

온누리교회 창립 35주년 기념 ‘온라인 선교간담회’

2000선교본부가 온누리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온라인 선교간담회 ‘코로나19 시대의 온누리선교를 논한다’를 개최했다. 10월 12일부터 14일 까지 웹엑스(webex)를 활용해서 열린 온라인 선교간담회에는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와 선교기관 리더십 300여 명이 참석해 ‘연합과 협력’, ‘교회개혁과 제자양육’, ‘이주민과 난민선교’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했다. 온라인 선교간담회에 참석한 선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선교 환경에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선교 전략을 모색하는 아주 특별한 기회였다”고 고백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코로나19로 인해서 선교 환경에 대단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선교전략에 변화를 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선교 환경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세 가지 화두가 있다. ‘연합과 협력’, ‘교회개혁과 제자양육’, ‘이주민과 난민선교’가 바로 그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환경에서는 외국인 선교사들의 이동과 사역이 제한되고, 관계 중심의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이 불가피하게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사안이 없다. 이와 같은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와 선교 리더십 300여 명이 온라인 선교간담회 ‘코로나19 시대의 온누리선교를 논한다’를 개최했다.

온라인 선교간담회 ‘코로나19 시대의 온누리선교를 논한다’에서는 ‘연합과 협력’, ‘교회개혁과 제자양육’, ‘이주민과 난민선교’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어졌다. 조만복 선교사(태국)가 ‘선교의 연합과 협력’, 이철희 선교사(몽골)가 ‘교회개혁과 제자양육’, 이광수 선교사(평택M센터)가 ‘이주민과 난민선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연합과 협력을 원한다면 ‘신뢰’, ‘본질’, ‘전문성’을 확보하라!

조만복 선교사는 “선교의 연합과 협력을 위하여 그동안 수많은 토론과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서 “선교의 연합과 협력을 가로막는 근본적인 원인은 신뢰 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조 선교사는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선교의 연합과 협력이 더욱 필요하고 중요하다”면서 중동 A국에서 실시한 비대면 화상사역 사례를 소개했다. 조 선교사는 “중동 A국의 한 지도자의 요청으로 올해 3월부터 화상으로 ‘멘토링’, ‘어 성경이 읽어지네’, ‘일대일제자양육’ 등을 시도했는데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훌륭한 양육을 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또한 조 선교사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아무리 사역 기술이 변하더라도 선교사의 기본과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면서 “성경통독, QT, 일대일제자양육 등을 통해서 선교사가 성도로서의 기본을 지킬 때 관계 형성이 되고,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사역을 위해서는 선교사의 전문성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 선교사는 “선교사가 공유하고 기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그에 걸맞은 사역도구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탁월한 사역도구를 현지어 일대일제자양육, 현지어 ‘어 성경이 읽어지네’, METC(선교영어훈련프로그램), CP(교회개혁운동) 강의 등을 소개했다.

황디모데 선교사도 조만복 선교사의 발표에 적극 공감했다. 황 선교사는 “선교지 교회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지 교회와 연합을 이루는 게 급선무”라며 “선교사가 현지 교회의 필요를 파악하고, 채워줄 수 있는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규석 목사는 “현지인들이 사역을 이어가면서 연합과 협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언제든지 현지인들에게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는 겸손함도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시대 개척 및 제자양육 키워드 ‘소그룹’, ‘현지인’, ‘온라인’, ‘플랫폼’

이철희 선교사는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선교사는 몽골 예즈니교회 사례를 소개했다. 몽골 예즈니교회는 교회개혁 4년 만에 현지인에게 이양되었고, 교회 10개를 개척했다. 현지인 중심의 자립, 재생산, 양육이 이뤄지고 있는 아주 좋은 선교 모델로 손꼽힌다.

이철희 선교사는 예즈니교회의 변화를 이끈 원동력으로 ‘소그룹’, ‘현지인’, ‘온라인’, ‘플랫폼’을 꼽았다. 이 선교사는 “많은 사람들이 한 건물에 모여 드리는 주일예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줄이고, 세 번 정도는 소그룹으로 가정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방향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즈니교회는 초기부터 소그룹 모임을 강조했다”면서 “교회 개혁적 소그룹 단위로 진행하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중동의 A 선교사도 이 선교사 발표에 적극 호응했다. 그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도 모이는 게 어려워지면서 1개의 교회를 6개 그룹으로 나눠 집중적인 예배와 양육을 하면서 눈부신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선교사는 “코로나19 이후 예즈니교회는 온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면서 “SNS를 활용한 예배, 성경공부, 성경통독, 일대일제자양육 등이 효과적인 양육방법이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교사는 덧붙여 “몽골인 20%는 아직도 유목생활을 하고 있는데 최근 몽골의 시골까지 통신망이 좋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예즈니교회의



온라인 선교간담회 ‘코로나19 시대의 온누리선교를 논한다’에서 300여 명의 선교사, 선교 리더십이 머리를 맞췄다.

온라인사역이 더욱 확대되고 유용한 양육도구가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선교사는 두란노해외선교회 몽골팀의 현지 사역자 양육 방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선교사는 “두란노해외선교회 몽골팀은 개척단계를 제외한 14개 교회를 현지인에게 이양하고, 병원사역을 제외한 교회개혁, 제자양육을 비롯한 모든 사역이 현지인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전환과 훈련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선교사는 미래 선교전략도 제시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 사역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선교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NGO 만큼 좋은 사역 플랫폼이 없다”면서 “사역의 균형을 잘 맞춘다면 NGO 사역 플랫폼을 활용해서 교회개혁과 제자양육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덧붙여 이 선교사는 “선교는 어떤 시대에도 멈출 수 없다”면서 “창의적이고 개혁적인 선교 정신으로 시대의 사명과 과업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민과 난민선교의 돌파구를 찾아라! ‘클릭전도’,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 제안

이광수 선교사는 ‘이주민과 난민선교’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선교사는 “국내 이주민, 난민 선교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그 이유로 “사업주들의 금주령과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하여 이주민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

라고 진단했다. 특히 이주민 리더십을 양성하고,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를 통한 비전 공유가 필요한데 그 시도조차 못하고 있어 몹시 안타깝다고 했다.

이 선교사는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클릭전도’,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을 제안했다. 클릭전도는 온누리M미션에서 개발한 전도 프로그램으로 4장 분량의 소책자다. 온라인으로 전도대상자들에게 링크를 전송하면 그 영상을 보면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지금은 한국어와 영어로만 제작되고 있지만 앞으로 25개 언어로 확대제작할 예정이다.

또한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은 SNS를 활용해서 국가, 거리, 시간을 선택해 특정 대상군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 방식이다. 대상자 선정, 적은 비용, 보안 등의 장점이 있다. 이 선교사는 “어느 선교용 페이스북 비즈니스 계정은 2020년 4월 시작했는데 벌써 팔로워가 1,450명이 모였고, 100명이 복음에 대해 긍정 반응을 보였으며, 40여 명을 양육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안산 캄보디아예배의 금주 캠페인 영상, 남양주M센터 인도예배의 뮤직비디오 등 이주민들의 비대면 콘텐츠를 소개했다.

온라인 선교간담회 ‘코로나19 시대의 온누리선교를 논한다’ 영상과 발표 자료는 2000선교본부 홈페이지(www.2000mission.org)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전문가 기고

율법, 그것은 생명의 율타리

로마서에서 말하는 율법 그리고 은혜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로마서에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동시에 그 믿음으로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다(롬 3:11). 예수님께서도 찬히 율법의 일점일획도 없

어지지 않고 다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마 5:18)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율법은 계속 유효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인류 모두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었는데(롬 3:9-10), 어떻게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구원받은 백성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만 우리가 순종하면 율법대로 사는 것이 아무 문제없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어서 율법을 이룰 수 없다면 나는 다시 죄인이 되는가?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롬 8:1) 다시 죄인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서 이 말이 구원받은 백성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도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해서 이뤄질 것인데, 구원받은 백성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그 율법을 만족시키며 살 수 있다는 뜻일까?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 준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은 율법 자체를 인간이 지킬 수 없는 너무나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은 선입관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벌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표적인 율법인 십계명을 살펴보자. 십계명 중에서 성도들이 지키지 못할 계명이 어디 있는가?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 부활 이후 확대되어 주일로 지키고 있을 뿐 믿는 성도가 지키지 못할 계명은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십계명뿐 아니라 십계명으로부터 파생된 세세한 율법까지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이 만든 법조문과 같은 방식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계명의 핵심은 예수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마 22:37-39)”이다. 즉,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사람은 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잘못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맺지 않고 단순히 십계명의 파생된 세세한 부분만 지키려고 한 것이며, 또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웠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정한 법부터 살펴봐야 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최고 결자인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다. 또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이후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는 사회질서도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가정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창 2:17)는 법을 만드셔서 가르쳐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벗어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아담에게 분명히 하셨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범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법 때문인 것처럼 비난한다.

“법이 없다면 죄도 없었을 것 아닌가?”

그러나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것은 우리를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생명의 율타리와 같은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만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아담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다.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한정이 없는데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지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려운 숙제가 될 수도 있는 “나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법으로 주지 않으시고, 쉽게 지킬 수 있는 단 한 가지 법만 주셨다. 지키기 어려운 법도 결코 아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법을 따르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은 이처럼 쉽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율타리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쉽게 지킬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그 법 안에 있으면 율타리처럼 안전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저 법만 지키는 수준에서 머무를 수는 없다. 겨우 법을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더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지킬 수 있는 법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 아담은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 아담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생명의 율타리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스스로 한 것이다. 그 결과 죽음이 아담과 그 후손들인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죄의 굴레에 갇혀 죽음을 두려워하며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는 삶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 것이다. 생명의 율타리 안에 있던 아담에게 주어진 단순하고 명확한 1계명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셨다. 10계명의 역할은 생명의 율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율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반대 방향에서 더 극적으로 표현하였다. 율법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롬 3:19).

거룩과 사랑이 역사하는 한국 교회로 회복되어야

로마서는 율타리 밖의 사람들의 죄가 어떻게 깊어지고 넓어지는지를 정교하게 묘사하고 있다. 첫 단계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주장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 우상숭배를 하면 두 번째 단계는 필연적으로 음란한 삶을 살게 된다.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성적인 죄가 만연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으로 온갖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하는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상실한 마음으로 성품까지 악해지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자신들이 행하는 것이 악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롬 1:18-32).

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는 하나님처럼 자신만의 우주와 지구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1장의 죄에 대한 열거에서 특히 동성애가 강조되는 것은 가정의 기초인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기 때문이다. 유전자가 XY염색체이면 남자가 되고, XX염색체이면 여자가 된다는 것은 초등학교들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자신의 성향이나 마음으로 염색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너무나 뚜렷하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는 것을 자신이 원하면 남자도 여자도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마 시대 있었던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마음이 매우 아프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이 왜 이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을까? 많은 분들의 회개 기도에서 고백하듯 기적의 주인공인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법의 율타리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그 법도 지키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어 안타깝다. 교회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 이상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롬 12:17-18). 초대 교회 시대에는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을 좋은 의미로 두려워했다(행 2:43).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룩과 사랑이 역사하는 초대 교회 모습으로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 교회만이 지역, 빈부, 노소, 이데올로기, 권력 등으로 찢어진 대한민국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하나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가정예배는 즐겁고 유익하다!”

CGNTV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방영 1주년

한국 교회 가정예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CGNTV 프로그램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이하 아.빠.가)가 방영 1주년을 맞이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들은 유익하고, 아이들은 재미있는 가정예배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가정예배 전문가들의 강의부터 성도들이 참여하는 실시간 가정예배까지 선보인 점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이들이 한 목소리로 “하루라도 더 빨리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고백할 정도다. 프로그램 담당 목회자, 제작진, 출연진들에게 아.빠.가 방영 1주년이 선물한 은혜를 들어봤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의 목적은 한국 교회 가정예배 활성화다. 이를 위해 제작된 CGNTV 아.빠.가는 목회자와 세 가정이 한 달 동안 라이브(Live)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프로그램이다. 문영재 목사(한강공동체, CGNTV 사목)가 MC를 맡아 가정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CGNTV 아.빠.가 프로그램 참가 가정은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참여하는 가정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도 방영되고 있다.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시청하는 가정들은 댓글로 출연진들과 소통하며 가정예배를 드린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에 맡겨는 수십 가정이 동시에 접속해서 가정예배를 드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1시간가량 이어지는 가정예배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다. 아이들이 가정예배에 그토록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면 분명 가정예배는 어렵고, 딱딱하고, 준비할게 많다는 오해가 한순간에 사라진다. 실시간으로 드린 가정예배 실황은 30분 분량으로 편집해서 매주 주일 오후 8시 50분 CGNTV에서 방영하고 있다.

CGNTV 아.빠.가는 단순하게 가정예배 순서와 설교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각 가정의 특성에 맞춰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바로 이것이 수많은 가정예배 콘텐츠 중에서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유다.

CGNTV는 실시간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는 아.빠.가 프로그램 ‘실천 편’ 방영에 앞서 한국 교회 가정예배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가정예배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가정예배 노하우를 제공하는 아.빠.가 프로그램 ‘길라잡이 편’을 먼저 제작 방영했다. 수십 년 동안 자녀들과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권혁승 교수, 가정에 말씀을 심고 있는 백은실 사모가 그 대표적인 전문가들이다. 가정예배 전문가들은 “가정예배를 공예배처럼 따라하려 하지 말고,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드리라”고 조언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 위주로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 가정, 가정예배의 구성과 설교에 부담감이 있는 가정은 CGNTV 아.빠.가 프로그램 ‘길라잡이 편’을 참고하면 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36가정이 CGNTV 아.빠.가 프로그램 ‘실천 편’에 참여해서 가정예배를 드렸다. 각 가정마다 자녀들의 참여도가 매우 높는데

이는 제작진의 부단한 노력 덕분이다. 초창기에는 가정예배 중에 잠이 들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자녀들이 있었다. 그러나 CGNTV 아.빠.가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아이들을 위한 가정예배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정예배, 가정의 화목을 선물하는 가정예배

CGNTV 아.빠.가 프로그램 방영 횟수를 거듭할수록 자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더 많이 제시하고 있다. CGNTV 아.빠.가 프로그램 제작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선 PD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도 자녀들의 적극적인 참여다.

“초창기에는 자녀들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고 가정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처음에는 신기해서 참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해하고, 자리를 뜨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가정예배에 집중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안한 방법이 바로 ‘액티비티 프로그램(activity program)’입니다. 말씀과 연결되는 그리기, 만들기, 꾸미기 등의 활동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가정예배 자리를 떠나가지 않게 했고, 자신들이 그리고 만든 작품을 보여주며 생각을 말하게 했더니 부모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났습니다.”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춘 가정예배를 접한 가정들은 자연스럽게 자녀 위주의 가정예배를 스스로 만들어갔다. 강부중 권사(용인 목양감리교회)의 자녀 강호윤(10살)과 강리안(5살)은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조를 정도로 가정예배를 좋아하게 되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가정예배에 어떻게 흥미를 갖게 할지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하니 아이들이 먼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TV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들 중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리니까 아이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정은 성경동화를 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먼저 성경동화를 들고 나와서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조릅니다. 추석에는 호윤이에게 가정예배 인도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가정예배의 유익이 또 있다. 가족의 화목과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36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렸다.

신앙성장이다. 강부중 권사 가정은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온 가족이 은혜를 받고 있다.

“가정예배의 유익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가정이 화목해집니다.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도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쉽게 화해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속마음을 털어 놓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주일예배와 가정예배가 연결되면서 한 주 내내 성령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김주희 집사(성남 선한목자교회)는 자녀들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왜 진작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았는지 후회했다. 김주희 집사는 교회 주중예배나 다양한 사역에는 열심이었는데 정작 가정예배는 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했었다.

“교회에서 매일 가정예배 순서지를 나눠주는 데도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둘째 아이 같은 반 친구 학부모님께 CGNTV 아.빠.가 프로그램 참여를 추천받았는데 사생활이 노출 되는 것 같아 출연을 망설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에 출연한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부모인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가정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된다. CGNTV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쉽다. 목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일 수 없다면 주일 오후 8시 50분 CGNTV에서 방영되는 본방송을 시청하면 된다.

CGNTV 김영선 PD는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예배를 정

착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은 정말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시청하면서 찬양도 하고,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CGNTV 아.빠.가 프로그램 출연 가족들의 나눔을 듣는 것 자체가 가정예배입니다. 시청하는 가정예배가 조금씩 익숙해지면 그때 각 가정에 맞는 모습으로 가정예배를 만들어 가면 됩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들은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다. 온누리교회 차세대사역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정 소그룹 가이드’, ‘52일 느헤미야 성벽 쌓기 활동패키지’, 온세대가 같은 말씀으로 신앙을 나누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활용하면 가장 좋다.

문영재 목사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CGNTV 아.빠.가 프로그램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했다.

“가정예배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가정예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이 가이드가 되어 줄 것입니다. 신혼부부, 출산을 앞둔 부부, 시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가정, 사춘기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1인 가구 등이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을 시청하면서 각 가정에 맞는 가정예배를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CGNTV 아.빠.가 프로그램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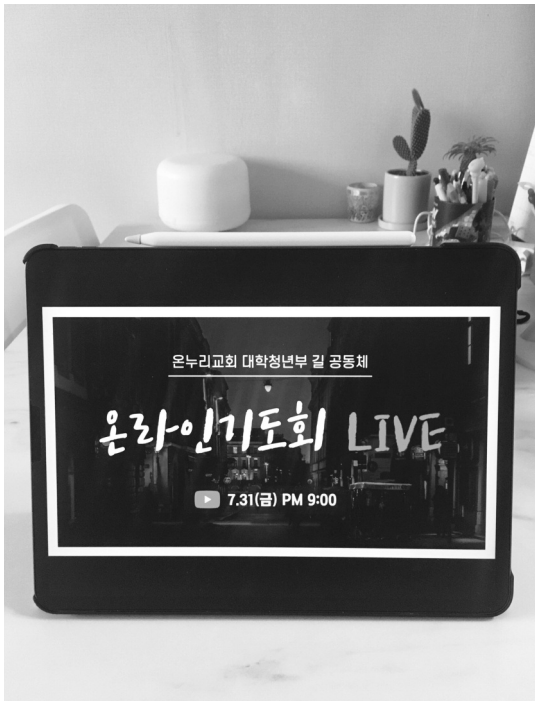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채널.
- CGNTV 아.빠.가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싶은 가정은 카카오톡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채널에서 참여하기 버튼을 누르고 신청.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길공동체 온라인기도회

주님이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이서진 자매는 온라인기도회를 통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고 점

점 더 삭막해지고 있다. 가장 그리운 일상은 함께 모여 마스크 없이 마음껏 찬양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던 때다. 예배당 예배가 제한되고 수련회와 아웃리치를 비롯한 모든 일정이 취소되면서 큰 아쉬움과 쓸쓸함이 몰려왔다.

연일 들리는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모든 원망과 날카로운 시선이 교회를 향해 쏟아졌다. 내 마음 한편에서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는 불만과 억울함이 몰려왔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상황보다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영상 예배 스테프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예배 송출을 위한 최소 인원만 예배당에 나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섬겼다. 텅 빈 좌석들을 보면서 너무 어색했고, 조용한 예배

당이 낯설었지만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어색하기만 했던 줌(ZOOM)으

로 하는 순예배와 유튜브로 진행되는 양육이나 기도회 같은 모임들이 점차 익숙해지고 온라인으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했다.

박천종 목사님께서 매주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던 온라인기도회를 줌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하셨을 때 '줌으로 하는 순모임을 부담스러워 하는 지체들이 많은데 과연 기도회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그것은 부족한 나의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음을 고백한다.

줌으로 진행되는 온라인기도회 첫 날, 하나님은 공동체를 향한 마음을 보여주셨다. 걱정과 달리 많은 지체들이 기도회에 함께 했고, 서로의 기도소리를 들으며 참여했더니 현장감도 있었다. 오히려 더 힘을 받아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

박천종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는 기도회에서는 매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온누리교회와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계속된다. 코로나19로 쉽게 모일 수 없는 환경에서 잊지 않고 각자의 처소에서 같은 시간,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큰 힘이 되었다. 기도회를 통해 부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벅차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저녁 9시가 되면 나와 동생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회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을 끄고 최소한의 조명만 남겨두고 각자 노트북과 태블릿PC를 꺼내 자리를 준비한다. 아무리 가족이라 해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약간의 어색할 만도 하지만, 막상 기도회가 시작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두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으로 들어간다.

줌을 통해서 듣는 서로의 기도소리와 또 옆에서 함께하는 동생들의 기도소리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도회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겠다. 오히려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소중하지 몰랐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간절히 깨닫게 되는 시간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다. 날마다 하루를 넘겨히 이겨 낼 힘을 주시는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귀한 온누리교회와 길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 이서진 자매(길공동체)



코로나19, '비대면 사역'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간증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는 새로운 양육 경험



박병량 집사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집중적이고 색다른 비대면 일대일제자양육을 경험했다.

지금까지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가 되어 3명의 동반자가 일대일제자양육을 수료할 수 있게 도왔다. 이번 일대일제자양육은 조금 특별했다. 시기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

해 일대일제자양육 자체가 어려웠다. 만남과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일대일제자양육이 비대면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올해 1월 공동체 일대일제자양육 사역자님께 연락해서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를 배정받았다. 솔직히 말하면 일대일제자양육을 사모했다기보다는 내가 안수집사 임직대상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임직을 받으려면 3번의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를 양육한 경험이 필요했다. 그동안 나는 2번의 양육을 마쳤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1명의 동반자를 양육해야 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아무렇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시작은 이렇지만 비대면 일대일제자양육이 주는 은혜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오프라인으로 일대일제자양육을 해본 경험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양육자와 동반자가 시간을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공감할 것이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나는 그 어려움이 배가 되었다. 동반자와 시간을 맞추

는 게 쉽지 않아서 1년 이상 걸려 양육을 마치기도 했었다.

이번에 양육한 동반자 형제는 농수산물시장에서 청과장사를 한다. 맛벌이로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 사실상 비대면이 아니었다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가 어려웠을 것 같다. 그 형제는 이전에도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았는데 불규칙한 근무 시간 때문에 수료를 하지 못했었다고 한다.

우리는 저녁 9시 즈음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비대면 일대일제자양육을 했다. 형제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다 아내가 퇴근하고 아이를 재우면 9시쯤 됐기 때문이다. 아내의 퇴근이 늦어지면 형제가 먼저 SNS메시지를 보낸다. 그럼 내가 10시에 하자고 제안을 하거나 아이가 잠들면 편하게 양육했다. 시간이 안 맞아 미루는 일이 없었고 매주 양육을 진행했다. 14과를 16주 만에 마칠 수 있었다.

오프라인은 한 주 밀리면 두 주가 미뤄지고 길게는 한 달까지 미뤄지는 경우가 있다. 계속 미뤄지면 처음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집중적이고 속도감 있는 양육은 색다른 경험이었다. 그래서 일대일사역팀에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을 병행하는 것도 좋겠다"고 소감을 제출했

다.

비대면 일대일제자양육은 전달성이 부족할 것 같다는 우려도 있지만, 적어도 나는 그런 경험은 없었다. 이동하거나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어서인지 몰라도 더 편안한 양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비대면 일대일제자양육이 완벽하다는 것은 아니다. 만날 수만 있다면 대면으로 양육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비대면 일대일제자양육을 병행해도 좋을 것 같다.

아무리 비대면이라지만 동반자와 양육자가 한 번쯤은 만나야 좋지 않을까. 동반자 형제가 장사하는 농수산물시장이 내가 자주 가는 곳이었다. 본격적으로 양육을 시작하기 전에 마스크를 쓰고 시장에 가서 형제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반가운 만남이었다.

첫 만남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형제가 일대일제자양육을 진행하며 내뱉는 고백 하나 하나가 은혜였다.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동반자 형제가 생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장사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고백했다.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 얻은 은혜와 구원의 확신으로 이 시기를 잘 견뎌가기를 기도한다.

/ 박병량 집사(부천 온누리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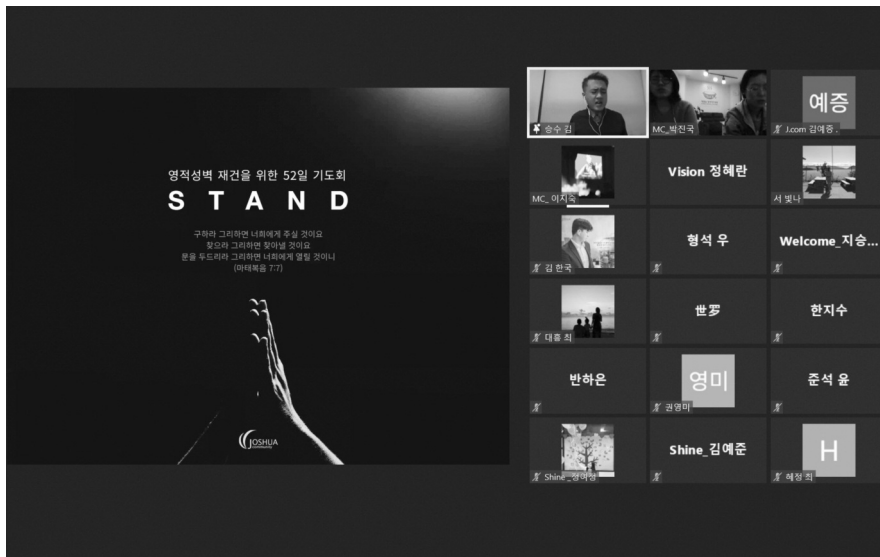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공동체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

영적성벽 재건을 위한 52일 기도회 STAND (이하 STAND 기도회)가 진행되기 바로 직전 내 모습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를 찾아보며 우울감을 묵상하고 있었다. 나는 영유아를 상대하는 직업이라 다른 직업군과 달리 코로나19 여파가 생기면 곧바로 직장이 폐쇄된다. 그래서 더욱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했다. 뉴스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사가 나올 때마다 챙겨보고, 일부러 검색까지 하며 우울감에 빠져드는 일상을 보냈다. 교회 예배당이 닫히고 영상예배로 전환되면서 더욱 주님 중심인 삶이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심인 삶을 살았다. 그런 나에게 STAND 기도회는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STAND 기도회를 통해 받은 은혜 세 가지를 나누고 싶다.

첫째, 나라와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의 은혜이다. 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나라와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던 중에 STAND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혼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느끼지 못했던 뜨거움과 힘을 느끼고 있다. 함께하는 기도의 힘은 매우 컸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

우울감보다는 기쁨으로, 불안함보다는 감사함으로



김예중 자매가 STAND 기도회를 통해 코로나에 집중했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람들이 있음을 알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STAND 기도회에서 사역지의 기도제목을 나눠주고 함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것에 매우 큰 은혜를 받았다.

둘째, 1시간의 기도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 대한 감사이다. 나는 STAND 기도회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마이크를 켜고 목소리를 내어 기도에 참여한다.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 성격이라 내 목소리가 300명 지체들 앞에 나온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참여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STAND 기도회를 통해 나의 부끄러움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은 말할 것도

없다. 1시간 기도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많은 교역자님들과 스태프, 봉사자들이 수고한다. 그들의 수고 앞에서 나의 고민을 반성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또 다른 변화도 생겼다. 예전에는 ZOOM을 이용해서 기도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다는 사람들을 이해했는데, 지금은 "그 불편함은 잠깐이다. 이 시기에 함께 기도하는 것이 값지고 귀하다"라고 말해주게 되었다.

셋째, 매일 주시는 말씀의 은혜이다. 목사님이 매일 다른 말씀을 준비해주신다. 매일 준비하시는 그 수고 자체만으로도 은혜이지만, 전하는 메시지에 은혜를 받는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향해있던 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주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한 감사함, 나만을 위한 기도보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

STAND 기도회가 중반에 접어든 요즘, 나는 우울감보다는 기쁨으로, 불안함보다는 감사함으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날마다 기도가 쌓인 여호수아공동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나만 은혜 받지 않고 함께 은혜 받아 우리의 나눔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이다.

/ 김예중 자매(여호수아공동체)



코로나19, '기도'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요셉공동체 '영적성벽 재건 52일 기도회 Build-Up'

요셉공동체에서 '영적성벽 재건 52일 기도회 Build-Up' (이하 Build-Up 기도회)을 온라인(ZOOM)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신청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해왔던 기도가 더 이상 깊게 되지 않아 지쳐가던 중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기도회는 나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마음을 주셨다.

일주일 동안 참여해본 결과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날로 가벼워짐을 느끼고 있다. 자칫 중언부언으로 끝날 수 있는 기도가 목사님의 인도로 중심을 잡게 되었다. 특히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주님께서 이끄실 것이라는 말씀에 믿음을 더욱 확정했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동기 부여가 되고 있다. 사단의 공격도 분명 있지만, 그럴수록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커져서 다 같이 성령님의 개입하심을 더욱 바라고 있다.

이번 Build-Up 기도회를 하면서 그동안 왜 그리 기도가 안 되었는지 곰곰이 돌아보았다.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을 찾던 나였다. 그런데 이제 보니 답을 이미 정해놓고 기도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벨탑은 나오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나 또한 조금씩 바

일상의 선순환을 되찾고 있다



우희균 자매가 Build-Up 기도회를 통해 주님께 청찬받는 기도를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벨탑을 쌓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했었는데 다시 그 탑을 내 손으로 허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주하기 싫었던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 찬양 가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와 닿았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피할 길을 내

어놓으셨고, 능히 이겨낼 힘까지 주셨다. 움켜쥔 손을 펴면 모든 것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오히려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다. 그 앞에 내가 얼마나 겸손하지 않았는지 부끄러웠다.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생각보다 높고 깊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지난날 내 욕심으로 마음이 어려웠을 주변 사람들의 앞

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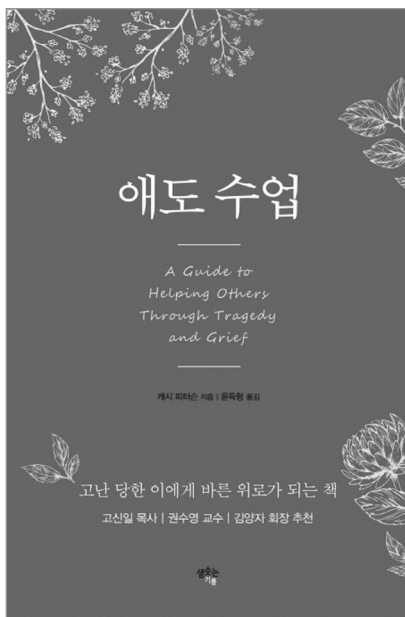
Build-Up 기도회 덕분에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건강한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일상의 선순환을 되찾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기도하게 되어 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다. 배가 부를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위기의 때가 왔을 때 다시 노예생활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하지만 열 번 넘어져도 열한 번 일어나는 것도 또한 믿음이다. 망설이며 기도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회복은 더 오래 걸릴 지도 모른다.

요셉공동체 각 지체들을 위한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개인적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질 것을 믿는다. 눈물로 무너진 성벽을 쌓아갔던 느헤미야처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회가 되기를 전심으로 소망한다.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께 부끄러운 기도가 아닌 칭찬받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승리의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광야의 때를 주셔서 감사하다. 외식(外飾)하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겠다. 이 순간도 은혜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우희균 자매(요셉공동체)



책 읽어주는 목사

고난 당한 이들을 바르게 위로하는 방법



〈애도 수업〉

캐시 피터슨 저 | 샘솟는기쁨 | 12,500원

‘고난 당한 이에게 바른 위로가 되는 책’이라는 부제를 보며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저자가 31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을 먼저 암으로 떠나보내고 수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고 체험했던 일들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중년의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이다. 나(저자)를 비롯한 가족들은 짙은 안개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가족들은 앞으로 다칠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확고히 결단을 해야 한다. 남편의 투병이 시작되자 ‘병원축새’라고 하는 주책없는 이들이 연락을 해왔다. 나름 진심어린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난 광경을 보려고 서행하는 운전자와 같은 모습이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이들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그 말은 “시간되면 언제 밤 한번 같이 먹자”라는 말과 비슷하다.

심각한 상황에 처한 우리 가족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다. 이웃들은 마주칠 때 난처한 기색으로 고개를 돌리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쑤였다. 잠깐이라도 집에 들렀던 친구들도 발걸음을 끊어버렸다. 잡담을 나누던 동료들도 더 이상 잡담을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범한 일상이다. 암 진단 받기 전과 다름없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다. 함께 웃고,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이 되지 못했다.

가장 큰 도움을 준 것은 쌍둥이 동생 부부였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잊게 되었다.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자유롭게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남편의 별명을 ‘행운아’라고 붙여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웅덩이에 빠져있다’는 말로 표현해서 마음을 가볍게 해주었다. 그 별명은 치료에 효과적이었다.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는 예상하지 못한 순간 찾아왔다. 수십 년의 결혼생활을 해왔기에 그 끝이 고통스럽고 지치고 뻗속까지 아팠다. 최선을 다해 남편을 돌봤지만 이제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채 몇 달을 보냈기에 장례식은 작은 규모로 치르기로 했다. 친구들은 그 장례를 말하며 실망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너무 작게 치르는 것 아니냐?”, “며칠만 연기했어도 방문했을 것이다” 등의 말들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들에게 해줄 수 있는 첫 번째 선물은 가족의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다. 사별로 끝이 날 수 없다. 다시 삶으로 들어오게 하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사별한 가족들에게는 밝은 인사와 환한 마음이 담긴 선물이 필요하다. 집 출입문에 격려의 메모 붙여놓기, 집 앞에 화분 놓아주기, 즐거운 영화 DVD 선물하기, 신선한 방향제 선물하기, 트리 장식

해주기, 양말 등 간단한 선물하기, 빵이나 쿠키 선물하기 등이 좋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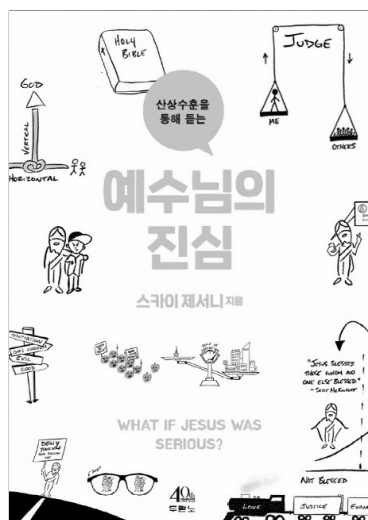
그리고 ‘나비언어’라고 하는 따뜻한 용기의 언어가 필요하다. 마치 유충이 고치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나비가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사별 애도자도 마찬가지로 상실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산들바람의 상승기류가 나비에게 불어오듯이 사별 애도자의 마음을 가볍게 일으켜주는 나비언어가 필요하다. 가장 좋은 말은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깨닫게 되었다.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축새와 같이 말뿐인 위로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진심어린 위로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 책의 부제처럼 바른 위로가 될 것이다.

박성전 목사
(김포공동체)

두란노 신간

지금 우리 삶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



〈예수님의 진심〉

스카이 제서니 저 | 두란노 |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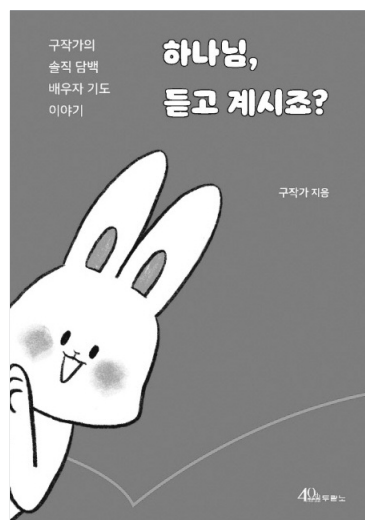
“삶의 길이 바빠 예수님의 말을 무시하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가?”

책의 첫 장에서 저자가 던지는 질문이다. 우리는 분주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다. 그 바빠 움직이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바쁘게 달려온 내 발자국만 가득하다.

책 〈예수님의 진심〉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의 진심을 바라보게 만든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긴 실질적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산상수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치 있고 참신한 시각으로 재조명한다.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또 그 익숙함에 속아 깨닫지 못했던 살아 있는 말씀을 경험하게 한다.

이 책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시라’, ‘선한 적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길 원하신다’, ‘인류는 사랑하면서 곁에 있는 인간을 미워하지 말라’, ‘예수의 말을 진짜 받아들였다면 삶은 달라진다’ 등 총 9개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각 파트마다 우리가 오해하고 무시했던 예수님의 진심을 바라보고 깨닫게 된다. 각 장마다 주제에 맞게 그려진 삽화가 본문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현 시대에 비추어 설명한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독자들은 산상수훈이 예수님 시대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설교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삶에도 가장 필요한 말씀임을 깨닫게 된다.

결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다



〈하나님, 듣고 계시죠?〉

구작가 저 | 두란노 | 15,000원

“보석가게가 있어요. 보석가게에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유리 진열대가 있고, 그 진열대에는 누구나 다 아는 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가게에는 주인만 아는 수납장이 하나 있어요. 그 수납장에는 희귀하지만 그만큼 가치가 있는 보석들이 있어요. 주인은 보석을 수납장에 고이 보관해요. 그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진정한 마니아가 찾기 전까지 보여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가게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가 그런 희귀한 보석 중 하나예요. 그리고 내 배우자가 그 보석을 알아볼 수 있는 손님이예요.”

위 이야기는 〈하나님, 듣고 계시죠?〉는 저자 구경선 작가가 외로울 때마다 상상했던 이야기다. 구경선 작가는 귀가 들리지 않는 자신을 대신해 좋은 소리를 많이 들으라고 귀가 큰 토끼 베니를 그리고 있다. 그녀는 베니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지만 늘 함께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좋은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만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지만 했다. 기다림에 지쳐 모든 걸 내려놓고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이 동화처럼 찾아왔다.

이 책은 저자가 배우자 기도를 시작하며 겪었던 감정과 생각들을 꾸밈없이 담아내고 있다. 간절한 기도가 깊어질수록 커져가는 좌절감, 그 시간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그대로 녹아있다. 결혼에 대한 가치관들이 많이 달라진 요즘, 이 책은 많은 싱글 크리스천들에게 결혼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싱글 크리스천들에게는 좋은 참고서가 되어 줄 수 있고, 현실의 상황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책이다.



일본어예배부 창립 30주년 기념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큰 하트를 그리며 기뻐하고 있다.

“앞으로 30년, 더욱 크게 쓰임 받기를”

일본어예배부 창립 30주년 기념예배

일본어예배부가 지난 10월 11일(주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일본어예배부 창립 30주년 기념예배는 유병진, 정진호 장로 축사, 테너 배재철 집사 특순, 이재훈 담임목사 말씀, 축하 케이크 커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다음 30년 더욱 크게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는 일본어예배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유병진 장로(일본

어예배부 초대 장로)는 축사에서 “30년 전 시작된 일본어예배부가 일본의 부흥과 은혜를 가져올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정진호 장로(당회 서기)는 “일본어예배부가 더욱 부흥하고, 한일관계가 회복되고, 러브 소나타는 계속될 것을 선포하는 일본어예배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김영숙 선교사는 “그동안 일본어예배부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과 헌신자들이 배출되어 감사하다”고 했고, 최혁철 형제(일본어예배 청년부)는 “일본 선교를 통해 더욱 하나

님을 알아가는 일본어예배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했다.

김재일 장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본어예배부가 되도록 앞으로도 일본 선교를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했고, 김철희 목사(일본어예배 담당)는 “지난 30년 동안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많은 분들 덕분에 뜻 깊은 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일본 선교에 더욱 헌신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 참가자 모집

11월 9일~11월 11일 가평 마이다스 호텔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11월 9일(월)부터 11월 11일(수)까지 가평 마이다스 호텔에서 진행된다. 알콩달콩부부학교 8기는 미자립 개척교회 목회자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총 12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전화 또는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 문의: 02-2182-9114

독서 초보도 읽기 쉬운 얇은 책 추천

두란노서점 온라인 스토어



두란노서점이 온라인 스토어에 ‘독서 초보도 읽기 쉬운 얇은 책 추천’ 코너를 개설했다. 이 코너에서는 <태어남에 관하여>, <결혼에 관하여>, <하나님의 임재 연습>, <예수는 누구인가> 등을 판매하고 있다.

두란노서점에서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 및 운영

하고 있다. 두란노 온라인 스토어에는 <생명의 삶>,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 공동체 양육 필독서, 목회자 추천 도서, 두란노서원 추천 도서, 온누리신문 소개 도서 등을 판매하고 있다. 온라인 스토어에 있는 도서를 1만 원 이상 주문하면 무료배송해 준다.

온라인 스토어는 홈페이지(www.duranno.com/store/onnuri)나 쿠팡 코드로 접속해서 이용하면 된다.

문의: 02-796-2310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두란노바이블칼리지에서 ‘42기 일대일 양육 코칭스쿨’을 개강한다. 11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6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일대일과 목회철학’, ‘일대일의 목회적용’, ‘어린이 일대일’, ‘일대일 접목 사례 및 방법’ 등을 주제로 일대일제자양육 현장 경험이 풍부한 온누리교회 목회자 및 성도 리더(장로, 권사)로 구성된 일대일 전문 강사진이 강의한다.

일대일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교회에 도입하기 원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5만 원이다. 10월 26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게시일로부터 2주 동안 시청할 수 있다.

문의: 02-2078-3456

따뜻한 사랑과 뜻밖의 선물

2020 엔젤트리 10월 25일까지 사연접수

“질병과 가정사로 일찍 철 들어버린 이주민 아이가 환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운동을 선물해주세요”

2020 엔젤트리에 접수된 사연이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엔젤트리에 사연을 접수할수록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뜻밖의 선물을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다. 2020 엔젤트리 사연접수는 10월 25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사연

대상자의 정보, 사연, 선물과 사연을 접수하는 성도의 정보를 기입하면 된다. 접수된 사연은 11월부터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온누리교회 국내 캠퍼스로 비나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된다. 무작위로 사연을 뽑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선물을 배송하면 된다.

문의: 02-3215-3434



코로나19 위로 음악회 ‘길 위의 노래’

야외음악회 방청객 50명 모집

CGNTV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찬양으로 시청자들을 위로하는 야외음악회 ‘길 위의 노래’를 개최한다. CGNTV 야외음악회는 오는 10월 27일(화) 오후 7시 포시즌 어데이(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서 열린다. 크리스천 뮤지션 박기영과 범키가 출연한다. CGNTV 야외음악회 방청객 50명을 사연 접수를 통해 모집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참가신청은 CGNTV 공식 블로그(blog.naver.com/cgnfriends)에서 ‘사연접수 양식’을 참고해 작성한 다음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공연과 방청객들의 사연은 CGNTV 특집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

참가신청: cgnjony@naver.com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수강생 모집

10월 31일~12월 12일 온라인 · 오프라인 강의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부모반은 온라인(ZOOM), 청소년반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부모반에서는 부부 이해와 역할, 청소년 이해와 소통,

자녀상담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청소년반에서는 QT 및 팀빌딩, 청소년 비전과 진로 등을 주제로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이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10월 3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3215-5801

NGO 더멋진세상, 네팔 주일학교 건물 신축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설교와 프로그램 준비 중

NGO 더멋진세상이 네팔 나야상구 은혜교회에 주일학교 건물을 신축했다. 10월 17일 준공감사예배를 드렸다. 아동 7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축 주일학교 건물에는 예배당, 사무실, 주방, 창고 등이 있다.

네팔 나야상구 은혜교회는 지난 2015년 네팔 지진 피해지역 긴급구호 당시 NGO 더멋진세상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다. 그동안

하나뿐인 예배당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집중, 설교의 난이도 차이,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의 문제들이 있었다.

이번에 주일학교 건물이 신축되면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며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교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홍하영 기자

창조신앙아카데미 수료 간증



/ 최진규 성도(얼바인 온누리교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을 했다. 고등학교 시절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동과 감격은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나의 믿음은 탄탄하지 못했고, 종교 다원주의나 다양한 교단의 구원론, 세상으로 부터 배웠던 과학지식으로 인해 많은 혼란을 겪었다. 특히 창세기는 신화적인 부분이므로 믿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옛날이야기 정도로 생각했다. 급기야는 기독교도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서 하나라는 생각도 했다.

나의 약한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한다.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심을 믿으며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심을 믿는다. 또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며, 다른 종교에는 없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소통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배경에 창조과학이 있다. 성경은 신화가 아니라 일점일획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며 우리의 믿음을 위해 말씀을 주셨다.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말씀에 근거한 창조과학은 믿음이 약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된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부르고 계신다. 어떤 사람은 교단에서, 어떤 사람은 현장에서, 또는 의료나 선교를 통해 각자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 창조과학은 나에게 가장 맞는 길이고, 믿음에 큰 성장을 가져다주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지식과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 성령이 불타는 세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대가 되기 위해 자녀들에게도 창조과학을 올바르게 가르치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한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해야 할 본분과 삶의 목적을 이루기를 소망한다.

유아세례 간증



/ 부: 박성황, 모: 임진영, 형제: 박지우, 아기: 박리우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 가정은 2010년 우연히 멋지게 찍힌 내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그 사진으로 인하여 아내를 만나게 되었고 관계가 발전했다.

얼마 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첫째 지우를 갖게 되었다. 한 해 두 해 지나며 가정과 아이에게 서툴렀던 우리는 서로에게 더 많은 것들을 바라게 되었다. 부부의 갈등은 점점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절망으로 가득 차 있던 아내는 우연히 알게 된 온누리교회의 젊은부부학교를 내게 제안했다.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공동체 지체들과 교제하며 그동안 우리 가정이 누려왔던 평범한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실감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 다시 사랑을 키워가며 둘째 자녀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게 되었다. 그런데 첫째 때와는 달리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 기다리는 아이를 주시지 않았다. 우리는 그 동안 첫째 아이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몰랐던 것을 회개하고, 나이가 적지 않은 우리 부부의 현실 앞에서 낙담하기도 했다.

그 무렵 아내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화가 난 나는 집을 나와 사무실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때가 2017년 12월 24일, 크

리스마스 이브였다. 사무실에 도착한 나는 TV를 틀었다. TV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주제로 만든 영화가 나오고 있었다. 분명 예전에 보았던 영화인데 느낌이 달랐다.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골고다를 오르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는데, 그날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게 됐다. 아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먹먹하고 아파왔다.

그날로부터 한 달여 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둘째 리우를 보내주셨다. 지난겨울 리우의 유아세례를 준비하면서 여전히 부족한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내 모습을 보게 하셨다. 더 좋은 남편과 아빠가 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유산을 남겨 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작은 교회로 굳건히 세워야 한다. 가정이 작은 교회로 굳건히 세워질 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자라 또 다른 굳건한 가정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 후로 나는 가정을 작은 교회로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 수료 간증



/ 남광용 성도(도곡공동체)

그 노력을 시작하려고 한다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는 중학교 1학년 아들과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에 참가하면서 느낀 점이 많다. 그 중 하나가 나의 생각, 행동과 말,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자녀의 자존감을 세우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나아가는 여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나는 아들 모세를 사랑한다.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내 사랑은 변함없다. 다만 그 사랑을 모세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앞으로 모세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세에게 상처를 주고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모세가 자기 자신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도록 부모인 내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하면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도움이 되는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잘 몰랐다. 그래서 아내의 권유에 따라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에 참석하게 되

었다. 그 덕분에 상처주고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방법을 알았으니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나의 결정과 의지에 달려있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나의 부모님도 내가 모세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지만, 나도 성장기에 상처를 받았고 중년이 된 지금도 그 상처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 감사하게 아내를 만나 많이 회복되었지만, 나의 상처로 인해 사랑하는 모세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내게 깨달음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배움이 있었던 것 같다. 아웃리치를 통해 감사를 배웠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를 마치면서 모세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노력을 시작하려고 한다.

청소년 부모 성장학교 파워임팩트 7기
대상: 중1~고3 청소년 자녀와 부모
기간: 10월 31일부터 12월 12일까지
문의: 02-3215-3532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심혜영 성도(중종로공동체)

양육자님의 삶으로 하여금

직장을 갖게되며 교대근무를 하게 되었다. 매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원래 섬기던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렸다. 우연히 주일에 여러 번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직장동료의 소개로 온누리교회를 알게 되었다. 주일 예배만 겨우 참석하기 시작한지가 벌써 15년이 넘었다.

오랜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교제나 사역은 꿈도 못 꿔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핑계가 되어 나 편한대로 선데이 크리스천이 되어 있었다.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나도 한 곳에 정착을 해야겠다는 결단이 섰다. 온누리교회 새신자 등록과정을 신청했다. 신앙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벧속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전교인 앞에서 담임목사님이 기도해주시는 기도를 꼭 받고 싶었는데 그건 등록교인만 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한 주를 빼먹으면 4주를 기다려야 하는데 매주 새신자 등록과정에 참석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새신자 등록과정을 마치는 게 쉽지 않았다.

결국은 신생아 축복기도는 받지 못했고, 겨우 4주 과정을 마쳤는데 일대일제자양육과정

이 남아 있었다. 신랑과 함께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님을 배정 받았다. 신랑은 바빠서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마치지 못했고, 나 또한 힘겹게 1년이 넘어서야 일대일제자양육을 수료할 수 있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다닌 머리만 크고 나태한 성도인 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원론적인 주제부터 접근하는 성경공부에 사실 큰 흥미가 없었다. 그런데 삶 자체가 간증이신 불꽃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양육자님을 만나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양육자님과 만남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다.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나와 만남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양육자님을 보면서 내 신앙을 훈련하는 시간이 된 것 같다.

바쁜 직장생활과 교회사역, 개인적인 큰일을 겪었는데도 나와 일대일제자양육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노력해주신 양육자님께 너무 감사하다. 양육자님의 삶으로 하여금 나를 깨닫게 하시고, 신앙을 성장시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장로칼럼

SWIM과 난민 선교 (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



전영수 장로
(SWIM 대표,
2000선교본부
중동융합선교팀장)

SWIM(세계인터넷 선교협의회)은 2017년부터 중동 A국에 있는 난민 교회를 돌보고 있다. 난민 교회는 코로나19 록다운 이후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을 비대면 사역으로 풀어가고 있다. 온라인화는 단순히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다. 창의적인 구조 변화가 선행된 것이다. 난민 교회는 코로나19 록다운과 재정 부족 등으로 그들의 순조직을 목양할 전임사역자가 부족해서 목양에 공백이 발생하자 우리에게 문제해결 방법을 자문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기회로 바꾸기로 했다. 핵심은 순위를 순장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순장 양성과정을 온라인 아랍어 일대일제자양육으로 시도했다. 순의 정체성을 소그룹 양육 공동체로 정하고, 새로운 순장이 이끄는 순모임의 첫 번째 양육 프로그램을 일대일제자양육으로 결정했다. 읽기보다는 듣기를 선호하는 현지 문화와 문맹자도 순에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음성파일이 지원되는 온라인 아랍어 일대일제자양육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다. 일련의 개발 과정을 그들에게 가르치며 난민들이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다. 난민 교회 온라인 아랍어 일대일제자양육 시스템은 구글 클래스룸 기반으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예정이다.

또한 난민들은 순 가정사역을 원했다. 세 차례 아버지학교와 어머니학교를 맞본 이들은 순 가정사역을 통하여 가정이 행복해지고, 이웃 난민들에게 생활전도를 하고 싶어 했다. 순 가정사역 개발은 창의적인 기획과 한국의

가정사역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방법은 순에서 온라인 강의를 함께 듣고, 대면으로 조별(순) 나눔을 하는 것이다.

난민 교회는 원격지에 있는 아랍인들을 전도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얼마 전 페이스 북을 통하여 온라인 전도를 했고 15명이 영접했다. 하지만 영접자들에게 대한 양육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온라인 아랍어 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하여 영접자들을 원격으로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하였다. 만약 영접자가 기존의 이슬람 세계관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교재 <Come Follow Me>를 택해서 원격으로 양육하기로 했다. 실현된다면 ‘반던 난민에서 주는 난민’으로 정체성이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WIM은 난민 교회 청년들에게 디자인 기술을 가르치고 꾸준히 일감을 공급해서 그들 스스로 생계해결을 하도록 돕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 고객들로부터 일감이 줄어들고 있어서 둘과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벗어나 더 많은 기술과 디자인 감각이 요구되는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내 대기업 디자이너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디자인 기술을 온라인으로 난민들에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SWIM은 한국의 중보기도팀과 난민 교회를 연결시켜서 이전과는 다른 전후방 연합선교를 하고자 한다. 또한 SWIM은 난민 교회에 대하여 창의적 구조변경을 실시하고, 온라인화라는 공식을 적용시키면서 중동선교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중동지역에는 우리가 섬기는 난민 교회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교회들이 많다. 그동안 난민선교를 통하여 만든 사역모델이 잘 응용되어 그들 스스로 전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권사칼럼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전도 여정



이영혜 권사
(송파B공동체,
서빙고 온누리 전도
학교 사역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전도가 힘들어졌다고 말한다.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부담이 된다면 전도를 뒤로 미루고, 급기야 전도를 멈추는 사람들도 있다. 코로나19 시대에서도 전도는 계속 되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전도를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부담을 느끼고, 포기하곤 한다. 하지만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나는 온누리 전도학교에서 배운 <최고의 행복> 5분 전도지를 활용해 날마다 ‘111 전도’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유일한 예수님을 전하자)를 실천하고 있다. 명절이나 아플 적에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내고 있는 지금도 매일 거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전도가 나의 일상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한국에 처음 터졌던 지난 1월 거리에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어느 날은 사거리에서 서 있어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잠시 멈춰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를 마치고 길을 조금 걷는데 자동차 사이에서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 “담배가 건강에 안 좋은지 알면서도 끊기가 참 쉽지 않으시죠?”라며 조심스레 다가갔다. 이야기를 나누보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이었다. 한국에 언제 왔는지, 고국에는 언제 돌아갈 건지, 가족은 있는지 등 그 사람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을 전했고, 그는 주님을

영접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자주 만날 수 있게 된 연령층이 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아파트 맞은편에 농구대가 있다. 오후가 되면 농구대 앞에는 아이들이 웅기쭈기 모여 있다. 한번은 그 앞을 지나가는데 농구공이 내 앞으로 데굴데굴 굴러왔다. 농구공을 주우러 다가오는 아이들에게 “몇학년이니?”하고 물었다. 초등학교생이라고 답하는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학교에 가지 못해 힘들지는 않은지 등을 물으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들던 아이들은 마음 문을 열고 영접까지 했다.

또 하루는 딸이 사는 대전에서 서울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한 청년을 만났다. 내 옆자리에 탄 청년의 손에 대전의 유명한 빵집 봉투가 들려있었다. 그 빵 맛있지 않냐며 친근하게 말을 붙이며 담소를 나눴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었다. 하나님의 존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얼마 후 승무원이 다가와 그 청년의 표를 검사했다. 알고 보니 뒷 칸에 탔어야 할 청년이 열차 칸을 착각해서 내 옆에 앉게 된 것이었다. 그 덕에 청년은 내 옆에 앉아 복음을 다 듣고, 주님을 영접까지 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시대에서도 매일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이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를 전하시기 위해 나를 그 시간, 그 자리로 보내주신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길 믿고, 내가 만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거리로 나서기만 하면 된다. 전도대상자를 만나는 일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대상자의 마음을 여는 일, 전도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다.

신앙에세이



김삼인 전도사
(일본어예배부)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달리기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귀가하던 중에 타고 있던 자전거가 돌맹이에 걸리는 바람에 개전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오른발 새끼발가락 하나가 잘려나갔다. 그 친구는 사고 이후로 100미터를 제대로 달리지 못하게 되었다. 걸을 때조차 가끔 절뚝거리곤 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우리 몸에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난 10월 1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일본어예배부가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렸

다. 일본어예배부가 창립된 지 30주년이 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예배였다. 일본어예배 모든 지체와 이 곳을 거쳐 간 믿음의 선배들을 모두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지난 30년 동안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다.

어쩌면 일본어예배부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중심부 그것도 서울 한가운데 위치한 용산에서 30년 동안 매주 예배를 드려왔기 때문이다. 일본어예배부가 예배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방증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30년 동안 기도하며 끊임없이 달

려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30년 전 일본어예배부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는 청년이었다. 4년 정도 일본어예배 청년부에서 섬기다가 외국으로 나갔고, 지구 한 바퀴 돌고나서 25년 만에 일본어예배부에 복귀했다. 일본어예배부 창립 3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함께 다녔던 청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일본을 품고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었다. ‘벤엘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모였었다.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모임이었다. 담당 교역자도 없어서 청년부 기도모임과 예배를 드릴 때 설교는 신학생들에게 부탁했다. 생각해보면 당시 일본어예배부에 모이던 청년들이 눈에 띄는 슈퍼스타는 아니었다. 오히려 예배공동체에서 새끼발가락 같은 미미한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렸다. 그들 중

에서 일부는 일본 비전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고, 어떤 이는 일본 현지에서 일본인 구원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선교사가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앞으로의 사역방향이 불투명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시는 것 같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던 익숙한 방식을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섬김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달려온 관성으로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는 교만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 같다. 꿈을 향한 일본어예배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이 꿈꾸시는 일본 선교가 일본어예배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30년 함께 걸어왔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는 함께 걸어갈 것이다. 일본어예배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함께 걸어온 길, 함께 가야 할 길



주일강단

〈3면에 이어〉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예배입니다.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경배하며 감사로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문제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는 많습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어떤 필요가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시간이 없고 바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응답받는 이는 적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크신 뜻에 따라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이 또한 적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에서 나아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이는 더욱 적습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이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 세 번째 단계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배와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믿음은 응답받는 믿음으로, 응답받는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가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은 아홉 명은 틀림없이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가족이나 친구에게 가서 자기 몸이 나았음을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행동을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고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적의 아이러니컬한 결과는 나병 환자들이 고침 받은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었다.”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와 부르짖던 믿음

의 사람들이 그 필요가 사라지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만을 바라는 믿음은 기적이 끝나면 감사도 끝납니다. 그러나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기적은 계속 될 것입니다. 나머지 아홉 명은 고침은 받았지만 고쳐주시는 분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기적은 경험했지만 기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감사한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로, 또 사마리아인으로 그 시대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진정한 인사이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사회, 교회이든 국가이든 사람들은 중심부에 있기를 원합니다. 본능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권력에 대한 욕구든, 자신의 야망이든 간에 주변인으로 있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사이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인사이더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는 90%가 가는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 감사하는 사람이 10%가 되겠습니까? 더 적을 것입니다. 많이 잡아야 10%입니다. 90%의 사람은 감사하는 인생보다 불평과 불만의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시간 10분의 1을 감사의 시간으로 드려질까요? 우리 언어 속에 감사의 언어가 10분의 1이 될까요? 우리 물질생활 속에 10분의 1이 감사의 드림이 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과연 10분의 1만이라도 감사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죄를 지을 때는 무리지어 함께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 무리와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쏟아내는 불평불만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해야 감사의 삶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즉시 감사하며 돌아갔습니다. 감사를 미루면 사단이 그 틈을 탑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착각하게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리 미뤄도 답이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모든 것은 서두르면 사고가 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서둘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서둘러야 하고, 즉시로 해야 합니다.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겸손하게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참된 경배 모습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굴욕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는 감사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19절).

진정한 치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는 타락한 심성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병은 고침 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심성이 있다면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믿음을 통하여 감사를 잃어버린 인간의 죄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단지 고침을 받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믿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믿음은 엎드려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받았든지 못 받았든지 감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믿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믿음,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감사를 미리 체험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언어는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원통함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의 삶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입니다. 그 영원을 유한한 인생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기원하며 성도님들께 문안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가 총체적 난국을 경험하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뿐이며,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임을 절감하게 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희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과 함께 짓는 희망의 다리가 드디어 완공됐습니다. 지난 6월 기도편지를 통해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지역의 다리 공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리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서 지난 6월 26일 완공되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수고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완공식도 했습니다.

청정 지역이었던 아프리카 말라위에 코로나 19가 막 성행하던 시기라 다리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다리 공사는 매우 순조로웠습니다. 약 2개월 동안 마을 주민들의 수고와 한국에 계신 후원자님들의 기도 덕분에 튼튼한 다리가 신속하게 지어졌습니다.

300개의 크고 작은 마을을 관할하는 시니어 추장과 이번 공사에 참여한 포스트 마을라니, 말랑가, 칸디오 등 3개 마을의 추장(TA: Traditional Authority), 그리고 공사의 실질적인 주

역이었던 3개 마을의 주민들이 다리 공사에 후원을 해 준 NGO 더멋진세상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수고로 지어진 다리를 보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지어져서 이제는 시장과 보건소가 위치한 릴랑게(Lirangwe)지역으로 가는 거리가 4km나 단축되었습니다. 걸어가면 약 7km나 되는 거리였습니다. 더 이상 우기가 되어도 도랑이 범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3개 마을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주민들에게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다리 공사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치면 외부의 큰 도움 없이도 마을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본인들의 필요를 스스로 충족할 수 있게 된 것을 배우게 되었다며 저희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다리의 주인은 마을 사람들이니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동안 다리 공사 소식을 궁금해 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던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리를 이용하는 주민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간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물질로 아프리카 말라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소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해 저희의 삶과 후원자님의 삶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저희에게 맡겨진 인내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 이석열, 박민영 선교사(말라위)

드디어 희망의 다리가 완공됐습니다!

CGNTV 후원캠페인

함께!
바라여선교

세상이 멈춰도,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66

CGNTV의 섬김을 통해
한국 교회의 예배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99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

장비와 기술의 부족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작은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

／ 작은 교회 온라인 예배 장비, 기술 지원 ／
300여 교회



군인교회 언택트 사역 전문가 양성교육

코로나로 인해 멈췄던 군 선교가
온라인 예배와 함께
다시 국군 장병을 찾아갑니다.



⋮

／ 군종 목사 온라인 사역 교육 진행 ／
100여 교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교회들의 기도,
CGNTV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CGNTV와 함께해주세요.



신규후원
바로가기



특별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